

스스로 내지 못하는 목소리는 결국 꺼져버리는 법

소설 만해 한용운

인적 없는 마을 풍경이었다. 그래서 마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황망히 울기던 발걸음을 잠시 멈춰,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인가를 둘러보았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골짜기에 연기 나오는 집 한 채가 없었다. 일제의 수탈이 날로 심해져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아진 때문이라. 이러한 비현실적인 광경에, 나는 선사의 입적 소식을 들었던 일도 '꿈이 아닐까'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잠시나마 하였다.

심우장의 문은 열려 있었다. 늘 그곳을 지키고 서 있던 왜경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을 드나들 때마다 거슬렸던 인물이었다. 또 어딘가에 숨어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여전히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망설여져 또 걸음을 멈추었다. 때는 여름의 초입이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채 뜨거워지지 않은 그 바람에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이윽고 선사가 떠나신 현실감이 느껴졌다. 물이 어린 눈에 심우장의 현판이 어른거렸다. 위장 오세장 선생의 글씨였다. 나는 여전히 멈춰 선 채로 그 현판을 바라보다, 집안으로 무거운 발을 옮겼다.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북향으로 지어진 집 마당은 바깥보다 어두운 느낌이였다. 심우



삽화=김홍인

이 나라 전체가 감옥과 같은데 어떻게 불 피운 방에서 잘 수 있느냐

장을 북향으로 지은 것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남향을 하면 집이 조선총독부 쪽을 바라보는 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미 남향으로 터를 잡고 공사가 진행되던 중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만해선사의 불호령에 집터의 방향을 고쳤다는 이 이야기는 유명하다. '무엇답다'라는 말이 점점 더 무색해지는 시대였다. 이제 이러한 '만해 한용운다움'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의 네 귀퉁이를 받치고 있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였다.

마지막으로 스님을 뽑기 위해 심우장을 찾았던 것은 지난 해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날카로워지는 바람 같은 겨울이 잔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 했다. 집 마당에 스님이 정성들여 가꾸시는 화초와 화목들도 그 빛을 어딘가에 떨어뜨린 모습이었다. 그 광경이 당시 나의 마음과 묘하게 맞물려져 나는 더욱 울적해졌다.

스님은 그날도 냉방에 앉아 계셨다. 방에 불을 때는 법이 없으신 분이였다. 일본에 빼앗긴 이 나라 전체가 감옥과 같은데 어떻게 불 피운 방에서 잘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였다. 아무리 추위도 자세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마치 '저울추' 같다고도 하였다.

"젊은 얼굴에 패기는 어디가고 근심만 가득하구먼."
스님의 첫 말씀이었다. 웅변가에 달변가이셨으나, 본디 필요한 말 외에는 과묵한 분이였다. 그날도 대뜸 정곡을 찌르신 것이다. 나는 선사를 바라봤다. 작고 검붉은 얼굴, 뚜렷한 주름에서는 강인한 의지가, 서늘한 눈매에서는 냉철함이 풍겨 나왔다. 나는 쉽게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잠시 적막이 흘렀다. 문

풍지를 두드리고 가는 바람 소리만 간혹 들릴 정도였다. 질문에도 강한 것과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려는 질문은 매우 연약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일수록, 꺼내는 데 더욱 많은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나는 숨을 고른 다음 입을 열었다. 호된 꾸중도 달게 받으리라는 마음이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앞뒤 없이 던진 우문이었다. 선사는 껌뚝을 뜻이 나의 눈을 응시하였다.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일제와 손을 잡고 변절하였습니다. 꿈에도 그리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일제의 수탈이 심해져 백성들이 모두 신용하는데도 오히려 그런 행동을 장려하고, 청년들에게 학병 출정을 권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나아가야 할 바, 지향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그들이 자네의 지향이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리 소심하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설정한다는 말인가?"
노기를 띤 그 말에 나는 달리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잠시 후,

스님은 말투를 아주 조금 누그러뜨리며 올해 나이가 어찌 되나 물어 보셨다. 내 대답을 들으신 스님은 "흠..."하며 한숨을 쉬시더니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데 답을 어찌 찾겠나.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네." 라고 하시며 어쩔 일로 부드럽게 말씀을 시작하셨다.

"내가 본격적으로 불도에 입문한 때가 바로 자네 나이쯤이었네. 시절이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달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지기 시작했던 때지. 어쩌면 그 시절, 나의 고민도 자네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해야 할 지도 모르네. '이러한 시대에 나의 인생이란 어떤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 말이지. 그래서 불교에서 길을 찾았느냐, 한다면 나는 한 치의 주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걸세. 어느 겨울 설악산 오세암에서 나는 그것을 찾았네. <화엄경>에는 모든 것은 마음이 근거라고 하여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이 있네. 그러나 자유로움은 다른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며, 그런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을 리 만무하니 일체가 평등하네. 자유는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나 받는 것이 아닐세. 따로 절대자가 있어 자유를 구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였네. 처한 현실을 근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 비로소 이러한 시대에 나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된 순간이었네.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 오세암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보다 분명했다."

"잡지 <유심惟心>을 창간하신 것은, 그럼 그 후의 일입니까?"
<유심>은 우리나라 최초로 만해 스님이 창간하신 불교 교양 잡지였다. 이 잡지는 총독부의 탄압 등 여러 이유로 아쉽게도 3호에

움직이지 않는데 답을 어찌 찾겠나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네

서 폐간되었으나, 불교의 대중화뿐 아니라 민중이 갈고 닦아야 할 수양적인 글을 주로 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대중에게 한 민족의 독립운동 정신을 현실적으로 일깨워주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네. 민중과 소통하며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자각과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언론이란 것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었지. 수 년 전에 <불교(佛敎)>라는 잡지를 인수하여 새로 발행한 것도 그러한 이유네. 지금 상황은 더욱 나빠졌지. 일본이 공정한 경로의 언론까지 막고, 자네 말대로 변절한 지식인들이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언론을 주도하려 하네. 게다가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은 이제 우리말인 저 위대한 한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네. 장차개령에 신사 참배라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잃어서는 안 되네. 누구의 것을 따라서도 안 되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목소리는 결국 꺼져버리고 마는 법이야."

지식인인데 하며 자유와 독립을 말하던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꺼뜨렸던가. 스님은 심지어 조선인이 일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평생을 민족 없이 살아오신 분이였다. 분명 그로 인한 곤란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을 터, 그런 분의 목소리기에 모든 말씀은 그대로 날아와 심장에 새겨지는 듯했다.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는 상황에 주어지네. 인생이 곧 선택이라

▶ 3면으로 계속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등으로 활기...

법륜대 특징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좌우 상감청자 코끼리에 새길 설판자 명단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낼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

상용-선안배-의기술
■ 재질: 청자, 상감-불안배법
■ 제작: 대한민국의 상감청자
■ 높이: 110cm
■ 몸통폭: 45cm
■ 밑판폭: 90cm
■ 무게: 25kg